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공사 업체가 계단 높이 규격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보수공사를 했다고 입주 예정자들이 주장한 현장 사진. /사진=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시공이 끝난 계단을 깎아내는 보수 공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의 A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공사 업체가 사전 설명도 없이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을 깎아내리는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미터(m) 이상이어야 한다.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 계단 층간 높이가 규격보다 낮은 1.94m에 불과하다며, 시공사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계단을 몰래 깎았다고 설명했다.입주 예정자 측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보수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건물 하자 등 보수 공사로 인해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관할 구청 측은 현재 해당 아파트에 대한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지만, 현장 조사에 나서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면 준공 승인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